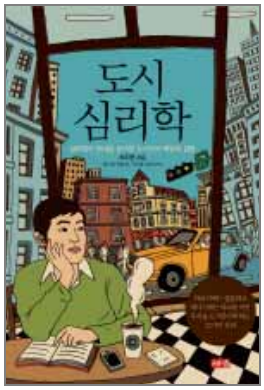
도시는 왜 우리를 외롭게 하는가

‘도시살이’인가 ‘도시앓이’인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시의 삶’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향해 몰려들고, 언제 어디서든 ‘빨리빨리’를 재촉한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은 도시를 더욱 뜨겁게 가열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간다. 도시의 삶은 마치 모두의 숙명인 듯 하다. 힘들어도 당연히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각박한 도시의 리듬에 맞춰 살게 하는 것일까. 도시는 왜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일까. 이 ‘도시앓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도시의 표면 곳곳에 현미경을 들이대 보았다.



도시심리학
하지현 | 해냄출판사

유쾌한 도시의 담론

원두커피가 대세임에도 가끔씩 생각나는 커피믹스의 달달한 중독성, 불야성을 이루는 모텔촌의 네온사인, 폭탄주를 돌려야 비로소 완성되는 비즈니스 현장, 곳곳에 버젓이 걸린 떼인 돈 대신 받아준다는 플래카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 도시의 풍경들이 심리학의 해부대 위에 올랐다. 저자는 도시의 일상을 조명하여 소통의 부재, 이중자아의 갈등, 쾌락과 관계에 얽힌 개인의 심리구조를 밝히고 있다. 이 분석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단면들에 비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끊임없는 충돌과 경계를 보여준다. 또한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가 아팠던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만한 해명을 들려준다.

진심 없는 소통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며 상대방과 소통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진심 없는 소통’을 요구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철저하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알맹이 빠진 소통이다.

도시인들은 대면접촉이나 전화보다 문자메시지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 대면접촉이나 전화응대는 그 성격상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한 응답은 실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또 개인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응답의 시간을 지연하고 실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에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공간 영역, 즉 소통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텅 비워진 공간에 들어서면 의식적으로 띄엄띄엄 자리를 잡아 앉으면서도 한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은, 자기 방어와 소통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커피 안의 이중자아

사람들은 타인과 차별화된 개성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갖기에 획일화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은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 이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커피’는 자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커피전문점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옵션을 가감해 주문하는 한 잔의 커피는 개성을 추구하는 개인적 자아의 심리를 반영한다. 반면, 자신의 입맛과는 별개로 물에 타서 휘휘 젓는 것으로 끝나는 고정된 맛의 '커피믹스'는 사회적 자아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커피전문점과 커피믹스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집단에 소속되고 싶으면서도 개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자아의 안간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의 사소한 모습들까지도 도시적 삶의 심리에 기인한 행동 산물이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쾌락의 승리

"우리 사회는 전보다 참 만족이 어려워졌다." 배고플 땐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에서 허기를 달랠 수 있고, 수십 개의 채널을 통해 원하는 방송을 즉각 볼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 참을성도 적응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맞춰주는 서비스 환경은 빠르고 편안한 것에만 의지하고자 하는 도시인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개인의 끝없는 욕망과 사회적 허용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떠오른 독특한 서비스 문화가 있다. 바로 늦은 시간 끝난 술자리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차를 운전해 집으로 모셔다 주는 '대리운전'이 그것이다. 가족까지 의심하는 이 불신의 사회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차 키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맡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신과 의심이 '편리함' 이라는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에 압도당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 아이러니한 이상(異常)현상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큼 도시는 욕망을 따라 진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 마디 위로보다 천 개의 공감

사실『도시심리학』은 어떠한 처방도 없이 끝을 맺는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사회의 여러 단면에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명쾌하게 풀어낸 해석들은 이 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개인의 심리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도시살이에서 응어리진 상처를 공감의 힘으로 치유해 준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삶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 도시에 뿌리내리기 위한 자아의 성장통이 아닌가 한다. 사회 안에 스며듦과 동시에 개인 정체성의 발전을 일궈내려 애쓰는 모든 도시인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스스로 처방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쉬어가자, 도시 라이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도시의 지친 이들에게 권진원이 부른 '살다보면'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을 전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는 여유를 가지고 유쾌한 도시의, 유쾌한 문화들을 즐겨볼 것을 권한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헛헛한 도시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도시인의 진심을 이끌어내는 흥미로운 대화의 안주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교보문고[북모닝CEO]편집팀